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새고려신문</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9년 3월 22일(금) ..(음력 2월 16일).. Пятница 22 марта 2019г. № 11(11682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3월 18일-22일 4박5일 일정에 사할린 주정부의 초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생단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이들은 제 3차 전국의국어학원 토어경연에서 우수한 학생들이다.
▲ 지난 19일(화) 조선학생단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김나지아를 방문했다. 보우 탈라 안드레예브나(박성옥) 김나지아 교장이 활동 수업 선생들을 소개한다.
(관련 기사 3면)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주 팀〉경연 대회에 1300여 명 참가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의 주도로 2월 18일부터 시작된 〈사할린주 팀〉인재발굴경연이 첫 단계를 완료했다. 사할린과 쿠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갈 지성과 활력과 전망을 지닌 인재들 선발과정에 첫 단계에서는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을 펼치는 평론 쓰기였다. 여기에 러시아의 42개 지역 주민 1300여 명이 신청해 참가한 가운데 사할린과 쿠릴 출신은 압도적으로 많은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경연의 전문심사단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정보의 확실성을 검토하고 다음 3월 28일에 시작되는 통신 단계 참가자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 시험과 발표 과정을 통과해 결승에 오른 200명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진행되는 최종단계에 초대된다. 최종단계는 4월 19일-22일 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사할린주 팀〉 일원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경영업무를 모델로 한 과제 처리와 지도력 발휘, 팀워크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우승자는 사할린주의 예비인재로 선발돼 사할린주정부, 지방자치체, 기업 등에서 지도적 직책을 맡을 기회가 주어진다. 현재 사할린주정부에서는 부수상 2명, 부서 장관 4명, 차관 2명, 기관의 지도자 4명, 부시장 5명이 필요하다고 전해졌다.

또한 〈사할린주 팀〉인재발굴경연은 젊은 지도자들에게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경연결과에 따라 러시아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10개의 교육장려금으로 100만 루블리가 지원된다. 또한 우수봉사, 우수청년·우수 사회적 기획 실현을 목적으로 15개 장려금이 지급된다.

(사할린주정부 홍보실 자료에서)

사할린주, 사회 분야 지원액 증가

2019년에 사할린주 예산의 지출액은 1700억 루블리에 달하는데 이는 작년보다 219억 루블리가 더 늘었다. 주요 지원 분야로 보건, 교육, 문화, 사회복지, 체육문화와 스포츠에 838억 루블리가 지급된다. 25만 명의 지역 주민을 위한 200개 이상의 정책 실시에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대행은 올해 사회적 대상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정부는 5년간 빈곤층의 지수를 2배로 줄여야 하는 과제를 세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은 노년층, 중환자, 빈곤층의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가의 치료를 요하는 중환자들에게는 300-500만 루블리 지원과 무료 요양소 이용 지원, 교육 분야에도 59억 루블리가 증가한 281억 루블리가 배당된다. 여기에 교사들의 임금과 학교, 유치원, 기술대학에 현대적 장비를 갖춘 설비, 교육기관의 건설과 수리에 지급된다. 학교의 2교대 수업 폐지로 3년간 사할린주에는 13개 학교를 건립할 계획이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는 올해 3개 학교가 건립된다. 보건 분야에는 180억 루블리를 배당해 절반 이상은 현대식 병원 기획과 건설에 지급된다. 의료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획 지원금은 2배 증가했고 과건된 구역에 따라 일시지원금은 150만-260만 루블리이며 해마다 150명의 새로운 의료전문가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스포츠 분야에는 스포츠 대상 건설 및 개건에 38억 루블리가 배당되었다.

국방부의 토지 일부 사할린주에 양도

러시아 연방 국방부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과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이 국방부의 관할 아래 있던 여러 토지들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협정서에 서명했다.

국방부 관할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있던 일부 토지, 설비 등은 국방부가 앞으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사할린주의 소속 관할로 넘기기로 했다. 앞으로 이 구역에는 유치원, 학교, 문화회관을 포함해 사회시설을 건설될 전망이다.

주정부 홍보실에 따르면 이 토지들은 국방부의 관할구역으로서 통제되어 지방 개발이 억제되어왔었다. 현재 이와 같은 토지들은 곧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쿠릴스크, 스미르너흐 구역에 각각 속하게 된다. 법적 절차가 완료된 후 이 구역들에서 주택, 사회적 제반시설 등 건설이 시작될 계획이다.

마카로브, 스미르너흐, 토마리 구역 등 토지 일부에 대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아직 군대 제반시설이 구축되어 있어서 차차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단신

사할린주 정부 확대회의 진행, 사회적 문제에 주의 돌려

지난 20일(수) 사할린주정부에서 열린 확대회의에서 2019년 1/4분기 결산을 내리고 올해의 사업계획과 5년간 계획을 심의했다. 사할린주 정부가 발표한 실행 계획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사할린 주민들은 사회적인 문제점을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에게 알린 바 있다. 주정부는 보건 분야와 사할린 주민들의 수면문제, 빈곤 퇴치 문제, 주택 건설 및 개건, 교육시설 부족, 고형 폐기물 처리, 수도관 및 급수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약 3시간 동안의 회의에서는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사할린주, 교통 제반시설개발에 78억 루블리 배당

올해 〈사할린주 교통 제반시설 및 도로 시설〉국가프로그램을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사할린주주마 경제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했다. 주정부 제안에 부응하여 주예산과 연방예산에서 이 프로그램 시행에 181억 루블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2019년 교통 제반시설에 78억 루블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당한 금액은 사할린-쿠나쉬르, 사할린-쉬코탄 간 화물여객선 운항,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개건과 다른 목적으로 지출할 예정이다. 지역 정부의 제안으로 도로망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프로그램의 새로운 배당을 추가하기로 하고 도로 개선과 현대화를 위해 약 103억 루블리를 지출할 계획이다.

사할린주한인여성회 회장으로 김웨철 씨 재선

지난 15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여성회 결산선거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여성회 회원 외에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주이산가족협회 박경춘 부회장, 홈스크한인회 신연자 이산가족담당이 초대되어 참석했다. 한인여성회 김웨철 회장은 2018년 사업보고를 하면서 여성회 회원들이 사할린 한인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여성회 사업확대와 새 회원 가입에 대한 제안을 논의했다. 보고된 여성회 사업을 회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다수가결로 김웨철 씨가 주한인여성회 회장으로 재선했다.

<h2 style="font-size: 24px; margin: 0;">새고려신문</h2>	<h2 style="font-size: 24px; margin: 0;">2019년 신문주문</h2>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p>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본사 편집부)</p>		

일본인 귀환에 한인, 북방소수민족의 일본으로 이민문제도 포함

<사할린 잔류. 100년 걸친 일·한·러 가족 이야기>일본책을 한국어로 번역

지난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홋카이도 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파이차드제 스웨틀라나 교수, 호주국립대학교 테사 모리스-수주키 명예교수와 한국 국민대학교 서재길 교수가 사할린을 방문했다.

홋카이도국립대학교 현무암 교수와 함께 <홋카이도에서의 다문화화 과정에서 사할린 귀환자들의 역할>이란 프로젝트(새고려신문 2014년 3월 28일호 소개. - 기자주)로 파이차드제 교수는 사할린을 여러 번 다녀갔다. 그들은 사할린 출신 일본인들과 일본인·한인 가족의 일본으로 귀환문제를 연구하고 있었다. 작년에 이들은 결과물로 <사할린 잔류. 100년에 걸친 일·한·러 가족이야기>를 일본에서 편찬했다.

이번에 사할린 방문 목적 중 하나는 연구범위를 넓혀 홋카이도대학교 연구자들이 호주대학교 모리스-수주키 교수와 함께 1950-1960년대 러시아 사할린, 한국 등 일본인들의 귀환문제, 사할린에서 일본으로 간 한인, 북방소수민족 등의 이민문제를 연구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파이차드제 교수가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아직까지 50-60년대 우일타, 남쪽족들이 일본으로의 이민 사실도 잘 연구되지 않고 있다며 이 조사 부분을 바로 호주대학교 모리스 교수가 담당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재길 국민대학교 교수의 사할린 방문 목적은 홋카이도 교수들이 편찬한 <사할린 잔류. 100년 걸친 일·한·러 가족 이야기>책과 관련돼 있다. 서 교수는 이 책을 한국어



로 번역하기로 했다. 교수에 따르면 이 책은 한국에서 올 8월 15일 전에 출판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고려신문을 다녀간 연구자들은 앞으로의 계획도 자세히 설명하고 새고려신문에 책 자료를 소개할 의향도 밝혔다.

서재길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교수는 근대문학을 연구하는 교수로서 일제시대 때 문학을 연구하고 일본으로 유학도 하여 일본어에 능통하다. 그는 만주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스웨틀라나 파이차드제 선생의 <사할린 잔류>책을 내용의 주제 발표를 듣고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서 교수는 강제징용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종전 1945년 후 귀환문제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일본 여성과 조선 남성

의 가족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안산 고향마을 영주귀국 이야기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을 한국에도 소개하고 싶어져서 번역하기로 했다고 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굉장히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이 책을 한국에 소개해줬다... 피는 일본인인데 문화는 조선인이고 언어는 러시아인이다. 복잡한 역사 속에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사람들의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라고 서재길 교수가 설명했다. 더 깊이 이해하고 번역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서 교수는 사할린 현장을 다녀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무암 교수는 한국 출신이고 스웨틀라나 파이차드제 교수는 러시아 출신이다. 원어민들로서 이들은 한국과 러시아에서 찾은 자료들을 잘 소화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사할린 잔류>책을 일본어로 편찬했는데 한국어와 러시아어도 출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했다. 서재길 교수가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뜻을 밝히자 홋카이도대학교 연구가들도 반가워했다. 스웨틀라나 파이차드제 교수도 빨리 러시아어로 번역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다고 본지 기자에게 말했다.

사할린에서 국제연구팀은 한인, 일본인, 원주민 대표, 주향토박물관 관계자와 연구가, 민족 사회단체 대표 등과의 효과적인 만남을 갖고 지난 18일 사할린을 떠났다.

(배순신 기자)

한국에서 입수된 편지

백수경의 아름다운 동행

1945년 러시아 사할린에서 출생한 백수경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된 부모 슬하에서 태어나 어려운 집안 형편 속에서도 끈질긴 노력 끝에 사업에 성공하였으며 그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었으나 고국에 대한 애절한 향수 때문에 2010년 12월 16일 대한민국 남양주시로 영주귀국을 하게 되었다.



사할린에 거주할 때도 동포애가 남달랐던 그는 사할린 동포연합회 회장 재임 시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주고자 수만 달러의 사재로 악기를 구입, 악단을 운영하는 등 그곳에서부터 이타적인 공익활동에 앞장서 왔다.

영주귀국 후에도 본인이 재정을 마련하여 동포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할린영주귀국 동포회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이때부터 남양주시를 비롯하여 양주시, 파주시, 김포시, 안산시, 화성시 등 8개 지역의 동포들 중 조합에 가입한 회원 70여명에게 매월 주식 및 육류 등의 부식을 직접 배달하면서 동포들을 위로하고 있으며 또한 환자들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함은 물론 공연팀을 결성하여 각 지역을 순회하며 위문공연을 펼치는 등 남다른 동포애를 발휘하고 있다.

또한 형님부부가 생활하고 있는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도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후원과 공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회관 어르신 및 직원은 물론 지역사회에서까지 그의 선행을 칭송하고 있으며 최근에 그 공로로 구청장,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요즘은 각 지역의 동포들을 찾아 따뜻한 사랑을 전하러 집을 나서는 그에게 그의 부인은 '우리 오늘도 행복합시다'라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름다운 동행에 나서서 그를 배웅한다.

전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관장 김상유

이모저모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 로또 1억 5500만 루블리 당첨

3월 14일 <고스로또 6/45> 결과가 발표되어 당첨된 2명이 최고 상금을 나눠받게 되었다. 한 명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으로 <스토로또(백로또)>사이트에서 복권을 구매했고 카잔의 주민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들 두 명은 100루블리의 복권을 구매해 1억5504만7238루블리의 상금을 탔다고 <스토로또>에서 전했다.

Южносахалинец выиграл в лото 15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14 марта в "Гослото "6 из 45" был разыгран суперприз. Его разделили двое победителей: жител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упил билет на сайте "Столото", участник из Казани использовал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Оба выиграли по 155 047 238 рублей, купив билеты за 100 рублей, сообщает "Столото".

사할린국립대, '재능인'을 찾는다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제16회 <재능>예술창작축제가 개최된다. 이 축제는 사할린주 교육행사 중 선도적 예술경연대회로 알려져 있다. 참가자들은 여러 방면- <음악>, <무용>, <연극 및 독창적 장르>, <언론>과 <공간예술>-에서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축제는 예술단과 개인이 참가할 수 있으며 경연 과정은 아마추어와 전문가(전문기관의 학생들), 두 범주로 나뉘어 진행된다. 모든 참가자는 연령별 4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A"그룹: 7세-14세, "B"그룹: 15세-30세까지, "C"그룹: 31세-50세, "D"그룹:

51세 이상.

올해 대회조직위원회는 축제 자체의 형식을 변경해 진행한다. 3월 23일 예선에서는 "자유 마이크" 형식으로 캐스팅그룹 앞에서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끼를 한껏 발휘한다. 3월 30일에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재능을 펼쳐보인다.

모든 경연의 부문들은 하루 동안 한 행사장에서 진행되는데 각 코너로 나뉘어 장장 10시간에 걸쳐 예술의 경주가 진행된다.

경연대회의 수상자 시상과 갈라공연은 3월 31일 17:00시에 대강당(주소: 콤무니스찌체스키 프로젝트, 33)에서 열린다고 사할린국립대 홍보실이 전했다.

В СахГУ будут искать таланты

С 23 по 31 март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уже в 16-й раз пройдет творческий фестиваль "Талант".

Фестиваль известен как лидирующий творческий конкурс среди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уются по ряду направлений: "Музыкальное", "Танцевальное", "Театральное и оригинальный жанр", "Журналистика" и "Арт-пространство".

В фестивале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и отдель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а конкурсные испытан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по двум категориям: любител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учащиеся профи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Также все участники будут распределены по четырем возрастным группам: группа "А" — от 7 до 14 лет; "В" — от 15 до 30 лет; "С" — от 31 до 50 лет и "D" — от 51 и старше.

В эт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внесли изменения в формат проведения самого фестиваля. 23 марта пройдет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просмотр, где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в формате "свободного микрофона" показать свои творческие способности перед кастинг-группой. А уже 30 марта прошедшие отбор смогут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свой талант перед членами жюри.

Теперь вся конкурсная часть пройдет в один день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и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ять собой почти 10-часовой творческий марафон, разделенный на блоки.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и гала-концерт пройдут 31 марта, в 17:00, по адрес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3 (большой зал),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ГУ.

사할린주, 불곰 사냥 4월 20일부터 시작

사할린주 산림 및 수렵자원부는 불곰 주내 수렵허가구역에서 불곰 사냥이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고 발표했다. 개인적으로 작성한 불곰 사냥 허가증 발급 신청서는 3월18일부터 사할린주 산림·수렵자원부에서 접수하는데 주소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프로스펙트 미라, 56번지 210호실, <사할린 산림부>기관 지방사무소이다.

문의 전화: 8(4242) 67-24-69, 67-24-67, 67-24-96.

수렵 자원 획득시기부터 10일 내로 수렵구역 허가증 또는 수렵시기 종료에 따라 불곰 사냥에 대한 필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산림수렵자원부가 고지했다.

Охота на бурого медведя стартуе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 апреля

Министерство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общает, что охота на бурого медвед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хотничьих угодий региона в весенний период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с 20 апреля по 31 мая.

Заявления от физических лиц на выдачу разрешений на добычу бурого медведя в общедоступных охотничьих угодьях области принимаютс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лесного и охотничьего хозяйства с 18 марта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роспект Мира, 56, кабинет №210, в районных филиалах ГКУ "Сахалинские лесничества". Телефоны для справок: 8(4242) 67-24-69, 67-24-67, 67-24-96.

(8면에 계속)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생단 사할린 방문

"사할린이 마음에 든다"

러시아어·음악수업에 참관, 마트료쉬카와 블린치키 만들기 체험, 박물관·스키장 등 견학

3월 18일 사할린 주정부의 초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학생단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15-16세의 여학생 1명과 남학생 4명은 제3차 전국외국어학원 로어경연에서 우승한 학생들이다. 사할린 방문은 러시아어경연 수상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전해졌다. 평양외국어학원 김영애 교원이 학생들을 인솔했다. 이번에 사할린을 방문한 학생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러 곳에서 왔다. 평양의



국어학원, 평양외국어대학 내 평양외국어학원, 함흥외국어학원, 평성외국어학원, 청진외국어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다.

조선학생단 사할린방문 프로그램은 주교육부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주교육부 엘레나 예르쇼와 수석교육설계사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러시아대사관(특명전권대사 알렉산드르 마체고라)이 러시아어경연을 주최하고 있다며 사할린 방문에 주정부가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년 전에 첫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이미 사할린주를 방문한 바 있었다. 그 당시 경연대회 수상자들은 그룹으로 나뉘어 극동지역 여러 곳(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사할린 등)에서 견학했고 올해는 사할린에만 우승자들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이번 방문이 조선학생들에게 좋은 러시아어연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포베다(승리)>기념관, <러시아는 나의 역사>멀티미디어역사공원, 주향토박물관, <크완토리움(퀵)>테크노파크, 곰 박물관, <고르니 우스두흐>스키장 견학,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찰 등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물론 학교 견학과 연수 프로그램도 있었다.

지난 19일(화) 조선학생방문단은 제1김나지아를 방문했다.

이들은 제1김나지아 보푸 띄라 안드레예브나(박성옥) 교장선생이 환영하고 학교를 소개하고 간단히 견학을 진행했다. 이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2가지 활동이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이들은 미술교사의 지도 아래 냉장고에 장식으로 부착할 자석에 러시아 인형 마트료쉬카를 그려 완성했다. 손수 만든 기념품은 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

기술교실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요리수업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러시아 블린치키(전)를 굽고 함께 직접 만든 블린치키를 먹으며 차를 마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실 러시아 교사들은 조선학생들의 뛰어난 러시아어 실력에 놀라워 했다. 특히 발음이 정확하고 억양도 거의 없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조선학생들은 러시아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 했고 사할린 측에서도 조선공화국 학교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육시스템은 좀 비슷했고 조선공화국에서는 3가지 외국어(러시아어, 영어, 중국어)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이날 김나지아 견학 활동 중에 학생들에게 마트료쉬카 그리기, 블린치키 요리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들었냐는 질문에 남학생들은 블린치키 만드는 게 더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학원 고급 2학년생인 강릉성 학생은 러시아어를 5년째 배우고 있다고 했다. 그가 공부한 외국어학원에서는 매일 2시간 러시아어 수업을 한다고 했다. 실습이 필요해서 필수수업 외에 추가로 러시아 문화에 관한 수업도 매일 2시간 하고 있다고 했다. 물론 자습도 많이 한다고 한다. 조선공화국에서는 러시아어 교육에 대한 의욕이 넘치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학생들의 러시아어 이해력이 대단하고 바로바로 질문에 답변해 사할린 교사, 기자, 교육부 대표들은 아무런 어색함을 느끼지 않았다.



조선 학생들은 21일 스키장 일정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강 학생은 여러 스포츠(스케이트, 배구, 축구, 탁구, 롤러스케이트, 수영 등)를 다 해봤는데 스키는 아직 못 타봤다고 했다.

김영애 인솔교원은 "우선 따뜻한 환대에 매우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배울 것도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기초기술교육이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자기 손으로 마트료쉬카를 만들어보고 지지도 만들어보는 게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되게 기뻐했습니다. 학생들의 계획권에 이런 것을 더 많이 넣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도 참관할 겁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배우러 온 만큼 우리도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라고 소감을 표명했다. 학생들은 "러시아 사할린이 마음에 든다"고 덧붙였다.

다음날 제2김나지아를 다녀온 조선학생방문단은 이 교육기관의 <자연과 인간>박물관을 견학하고 러시아어 수업에서는 지명화 주제로 수업을 듣고 음악 교실에서는 사할린 음유시인의 노래 한 곡을 배워보았다. 그리고 답례로 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조선학생들이 공연을 선사했다. 이들은 러시아 노래 <우리는 행복을 기원합니다>, <모스크바의 밤>, <카츄샤> 등을 완벽한 러시아어로 불러서 사할린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주 교육부 관계자는 러시아어경연대회 우승자 사할린연수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4박5일 방문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조선학생방문단은 22일(금) 사할린을 떠날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글/배순신 기자, 사진/이예식 기자)

남동사할린센터 수강생 문집 발간 준비

인천 남동다문화사업소(소장 심연숙)는 남동사할린센터 글쓰기 강좌 수강생 사할린 한인들이 최근 문집 발간을 위해 학구열을 올리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다문화사업소는 올해 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 강사 6명을 채용해 지난 4일부터 다양한 강좌들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글쓰기반'은 이번에 신설된 신설 강좌다. 주 2회 운영하며 등단 문인이 지도하고 있다.

명순이 강사는 "수강생들의 한국어 수준에 차이가 있어 맞춤형으로 수업하고 있다"며 "지난 시간 주제인 '나의 이야기'에선 한국 생활과 사할린 생활을 비교하는 글들이 많았고, 내용과 표현이 풍부했다"고 평가했다.

한 참여자는 "러시아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60년을 살다가 10년 전 한국에



온 상황이라 전문적인 글쓰기는 생각조차 못했다"며 "훌륭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업을 통해 내 인생을 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현재 생활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끝나지 않은 귀환, 불리보지 못한 이름 · (1)]

'DMZ 평화공원' 청사진] 흩어진 유해 '접경지 안치'...

南北 동질감 회복 · 긴장 완화 '효과'

일제 강제동원 역사의 피해자인 조선인에 대해 남북공동 피해조사와 유골수습 등을 통해 DMZ내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976년 준공된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 위령탑 . /임열수기자

**추모공간 공동조성 '평화시대' 활용
강제동원 조선인 수습 '최적안' 펼쳐
정체된 대일항쟁 피해조사 '새 동력'
일보상 못받은 북한 연구에 큰 관심**

역사의 피해자인 강제동원 조선인을 명예롭게 수습할 최적으로 꼽히는 것이 남북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DMZ 평화공원'이다.

남북이 갈라서기 전에 벌어진 강제 동원에 대한 추모공원을 조성해 동질감을 회복하면서, 남북의 긴장도가 가장 높았던 이 지역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든다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다만, 평화공원 조성까지는 남북 합의를 비롯해 수 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흩어진 조선인 피해자 유골을 봉환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왜 DMZ 평화공원인가

=역대 정부는 남북 긴장을 완화할 묘안으로 DMZ 활용법을 제안해 왔다. 지난 1982년 통일부의 전신인 국토통일원은 DMZ 내 공동경기장을 건설하고, 자연생태계에 대한 공동학술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노태우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DMZ에 '평화시'와 '남북 합작 공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명박 · 박근혜 정부는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자는 계획을 내놨다.

접경지대에 평화지대를 설정하는 것은 비단 남북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지난 2004년 에콰도르와 페루 경계에 설정된 세계평화공원, 그 이전인 19세기에 스웨덴과 노르웨이 국경에 설치된 '모로쿠리엔 보호구역' 등은 DMZ 활용안의 모태가 됐다.

이런 구상들은 접경지역에 일종의 중립지대를 설정하고 양측이 이를 공동관리해 긴장을 완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 DMZ 평화공원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 봉안

=중립지대 구상의 구체적인 안으로는 조선인 피해자 유골이 봉안된 'DMZ 평화공원'이 거론된다.

지난해 북한이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최초로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는 고양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 주제가 '대일 항쟁기 피해보상'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아직 일본으로부터 대일 항쟁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강제동원 피해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 내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가동된 대일 항쟁기 피해 조사가 수년째 멈춰진 상태라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남북이 공동으로 피해 조사를 벌이고, 유골을 수습해 이를 DMZ에 안치하자는 제안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북한은 유골 봉환 작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 측은 지난해 연말, 2004년부터 강제 동원 피해 조사를 진행해 온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를 북으로 초청해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은 "제대로 된 추모 공간도 없이 잊힌 조선인 피해자가 너무나 많다. 지금이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경인일보, 2019.03.11)



경인일보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дседателем РООСКЖ вновь избрана Ким Ве Чери

15 марта 2019 г.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остоялась отчетно-пере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На собрании такж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едатель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ак Ген Чун,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Холм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ин Евгения.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за 2018 год отчиталась председатель РООСКЖ Ким Ве Чери. Она отметила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женсовета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Были высказаны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расширению и привлечению новых членов организации.

Большинством голосов Ким Ве Чери была переизбрана председателем на второй срок, сообщили в РООСКЖ.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Интернет-СМИ корё-сарам в Москве

16 марта 2019 г., в Москве,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ООК состоялась очень важная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групп социальных сетей и сайтов по теме корё сарам. Встреча была подготовлена по инициативе Андрея-Сергея Кима,

друга. Живая встреча очень сильно дополняет характеристику ресурса, понимаешь его глубину, в связи с его лидером и, в этом плане, Андрей-Сергей Ким и Игорь Ким, меня сильно впечатлили – такие очень



главного редактора паблика "Russian Koreans – Корейцы СНГ – 고려사람" (vk.com/koryosaram), поддержана Дмитрием Шином – главным редактор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портала корейцев СНГ "Ариран" (arirang.ru), Андреем Шином, ИСК "Корё" (facebook.com/groups/koredo.ok.ru/koreanok, korean-ok.ru), (ИСК "Корё" представлял Александр Цой), Игорем Кимом, председателем Волгоград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Мирина"(его попросили быть модер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Валентином Ченом – главным редактором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gazeta-rk.ru) и Владиславом Ханом, <https://koryo-saram.ru>.

Организационную часть встречи взял на себя Молодежный центр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который четко подготовил встречу в ООК.

Встреча,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ыла ознакомительной, потому имела эмоциональную составляющую, как и во время презентаций своих ресурсов, так и за пределами мероприятия. Мы поближе узнали друг

глубокие по содержанию молодые люди, работающие в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компьютерных технологий, но, при этом, влюбленные в корейскую тему. Дмитрия Шина и Валентина Чена знаю давно, встречались много раз, тем не менее, каждая встреча приносит что-то новое, в этот раз Дмитрий Шин, как один из организаторов, оказал мне широкий московский прием, окружил вниманием и заботой на все время моего пребывания в Москве.

Аудитория встречи тоже был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й – Вячеслав Ким,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ООК; Жанна Григорьевна Сон, кореевед; Александр Шин, редактор журнала "Единство"; Александр Пак, член ОКБК; Яна Петрова, переводчик; члены Молодежного центра корейцев Москвы и другие гости, постоянные читатели наших ресурсов.

Есть надежда, что эта встреча не была последней, будет еще не один повод вновь встретиться в Москве.

(Владислав ХАН,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Ученикам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нравилось на Сахалине

Знакомство с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островной системой образования: ученики языковых училищ из КНДР прилетели на Сахалин. В составе делегации 5 учеников и педагог Пхенья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се они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й олимпиады школьников по рус-

ведущую мастер-класса. На заготовленную деревянную основу сначала был нанесен контур, а затем — самое интересное и увлекательное — процесс раскрашивания матрешки, где можно в полной мере проявить фантазию и воображение. Учащиеся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были в восторге, ведь самый известный су-

провизированный концерт, который подготовили гости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На чист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они спели "Мы желаем счастья вам", "Подмосковные вечера", "Катюша" и др.

Помимо этого для делегации из КНДР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обзорные экскурсии в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област-



скому языку. Пятидневная ознакомительная поездка на Сахалин — одна из наград для ребят.

На Сахалине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подготовлена насыщен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и 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ы. Наибольшее впечатление на ребят произве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и уроки, которые провели для них в гимназиях №1 и №2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гимназии №1 гостей ждал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раскрашиванию деревянной матрешки. Учеников из КНДР очень заинтересовала эта идея, они внимательно слушали педагога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

венир России они создали своими руками. На занятии "Русское чаепитие" иностранным гостям рассказали о традиции чаепития с блинами, и, конечно же, ребятам дали возможнос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испечь это лакомство.

В гимназии №2 делегация посетила школьный музей "Природа и человек".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организацией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Для ребят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урок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где вместе с учителем они разобрали тему топонимики, а на уроке музыки разучили одну из композиций островного барда. Настоящим подарком для педагогов и учеников школы стал небольшой им-

музе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Музей медведя. 21 марта гости побывали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детском технопарке "Кванториум" и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Завершается визит иностранных гостей 22 марта.

На память о поездке на Сахалин учащимся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дарили сувениры, книги, являющиеся класси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памятные фотоальбомы, на страницах которых собраны яркие моменты пребывания на острове, сообщает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Фото: Ли Е Сик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язательно указать).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можно прислать по сле-

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67-85, 43-72-94.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7 мая 2019 г.

Призы: Поездк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т.ч. путевк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летний языковой лагерь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Генхи на 2 недели).

Лауреаты награждаются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Чон Гён Ду: КНДР продолжа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связанную с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ой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фиксируют в КНДР активность, связанную с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ой. Об этом министр обороны РК Чон Гён Ду сообщил 18 марта, выступая на заседании парламент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вопросам обороны. Член комитета, депутат от партии Свободная Корея Пэк Сын Чжу задал министру вопрос о том, наблюдается ли на Севере активность да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Министр ответил положительно. Между тем, Чон Гён Ду затронул ситуацию с активностью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ракетном полигоне Сохэ. По его словам, пока рано с уверенностью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речь идёт конкретно о деятельности, связанной с ракетами. Пока нет конкретных данных о том, что Север готовится к ракетным пускам.

Стоимо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ценных бумаг в руках иностранцев превышает 500 трлн вон

В феврале в руках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находились ак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и облигации, размещённые на бирже, в объёме 563 трлн 700 млрд вон или примерно 498 млрд 584 млн долларов. В феврале чистая скупка иностранцами ценных бумаг 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м рынке составила 1 млрд 457 млн долларов. Чистая скупка сохраняется третий месяц подряд.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в новых инвестициях пришлась на Европу, страны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и Азию. В общем объёме ценных бумаг, находящихся в руках иностранцев, на долю США приходится 42,7%, Европы -29,2%, стран Азии - 12%, стран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3,5%.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мериканск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КФ отправились в КНДР

Делегация американск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Христианские друзья Кореи» (СКФ) отправилась в КНДР с трёхнедельным визитом. Об этом 19 марта сообщила радиостанция «Голос Америки», ссылаясь на письмо главы организации Хайдена Линтона о том, что делегация выехала в КНДР 16 марта. В нём также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Христианские друзья Кореи» получили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сещение Севера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ША. Поездка американских граждан в КНДР является первой после того, как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Вашингтоне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пересмотре запрета на посещения Севера американцами. Также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их врачей в США получила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ездку в КНДР, которая запланирована на середину мая.

В Сеуле установят 50 тыс. сенсоров с технологией интернета вещей

К 2022 году мэрия Сеула установит по всему городу 50 тыс. сенсоров с технологией интернета вещей, на базе которых планиру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концепцию «умного города». 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а составит 1 трлн 400 млрд вон или 1 млрд 236 млн долларо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ланом, сенсоры будут собирать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данных о концентрации микрочастиц, силе ветра, ночном освещении, движении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и людях, и о других аспектах жизни города. База данных будет анализироваться вместе с имеющейс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й информацией в рамках принятия конкретных мер для развития города, в том числе, в вопрос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 дворце Чхандоккун начинается программа вечерних прогулок

Опубликовано расписание ежегодной программы вечерних прогуло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еульского дворца Чхандоккун. Программа называется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Чхандоккуну под лунным светом».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дворец будет открыт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с 4 апреля по 9 июня, а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года с 22 августа по 27 октябр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можно увидеть ночной вид Чхандоккуна, который внесён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а также послушать интересный рассказ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гида о королях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Такие прогулки начались с 2010 года и приобрели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Единновременно в туре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не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что становится причиной настоящей конкуренции при продаже билетов. В этом году предзаказы начались 20 марта. (RKI)

МИД России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утвердили план обменов между ведомствами на ближайшее двухлетие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и Россия договорились укреплять "контакт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и развива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экономике, а также в гуманитарной и различных других областях,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хеньяна, отслеженном в Сеуле.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на встрече в Москве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м Чон Ира и 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коллеги Игоря Моргулова,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Обе стороны договорились развивать контакт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и обмены в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е, активно расширя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и гуманитарной областях, оказывать взаимную поддержку в вопрос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рене", отмечает агентство.

"В результате переговоров был подписан план обменов между двумя министерствами на 2019-2020 годы".

Обозреватели считают, что "контакты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могут означать возможный визит в Москву лидер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а и его саммит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хеньян наращивает свою дипломатию с Россией после провала саммита между Кимом и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Эксперты видят в этом попытку укрепления отношений с соседними странами для будущих переговоров с Вашингтоном и в то же время возможность заручитьс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мощью.

Визит Им Чон Ира в Россию состоялся в ряду поездок двух других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чиновников.

Ранее в этом месяце министр внеш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Ён Чжэ встречался с министр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Александром Козловым по обсужден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торговле и экономике.

Хан Ман Хок,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департамента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равящей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также посетил недавно Россию для участия в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фотовыставки по случаю 70-летия официального визита в Москву основате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Ир Сена.

Сеул, 19 марта - ИА РУСКОР

В Южной Корее случайно запустили ракету ПВО

В Южной Корее во время обслуживания зенитно-ракетного комплекса "Чхонгун" произошел случайный запуск ракеты, которая, к счастью, не нанесла ущерба и вскоре взорвалась в воздухе. Военные ведут расследован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 инциден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командовании ВВС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нцидент произошел сегодня в 10 часов 38 минут утра в части ВВС, расквартированной у города Чхунчхон, что в 90 км к востоку от Сеула.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работ по обслуживанию ЗРК "Чхонгун" произошел нештатный запуск одной ракеты ПВО, которая вскоре сама взорвалась в воздухе",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Военные пояснили, что у ракеты сработала система самоуничтож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ная для аварийных ситуаций. В командовании ВВС отметили, что до настоящего времени никаких сведений об ущербе для людей или имущества нет, а следователи уже занялись расследованием причин старта ракеты.

Южная Корея начала сери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ЗРК "Чхонгун" с 2017 года. Комплекс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перехвата воздушных целей на удалении до 40 км и высотах в 15-20 км.

Хотя в местных СМИ называют комплекс "исконно корейским", на самом деле разработка его велась НИИ оборо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и наук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российским концерном "Алмаз-Антей". Производитель - корейская компания LIG NEX 1. Одна батарея ЗРК "Чхонгун" состоит из радара, машины управления и контроля и 6-8 пусковых установок, в каждой из которых по восемь ракет-перехватчиков. Вес ракеты - 400 кг. У "Чхонгуна" есть и другие названия - "Чхольмэ-2" и M-SAM. Наряду с американскими ЗРК "Пэтриот" "Чхонгун" входит в состав самого нижнего эшелона противовоздушной обороны Южной Коре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Открытие Года корейского кино в России

17 марта считается символом начала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и столетие создания Времен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Приморье.

В этот день в московском Доме кино состоялся премьерный показ фильма «МАЛЬМОИ: Секретная миссия» (말모이).

В основу киноленты легли события 40-х годов прошлого столетия, когда одним из следствий порабощения Кореи Японией стал запре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 стран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фильме показана история, основанная на реальных событиях, о тайном обществе, которое стремилось сохранить родной язык.

МАЛЬМОИ - название первого словар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й создавался на протяжении 13 лет. 164 125 слов собирали 108 участников общества по всей стране.

МАЛЬМОИ - название тайного 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воплощает духов-

ность народа, его единство и веру в свободу.

Фильм заставляет переживать за судьбы героев, временами даже плакать, смеяться над милыми шутками и задумываться о прошлом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ак сказала режиссёр фильма, Ом Юна: «Мне хотелось бы, чтобы зрителям передавалась энергия этих людей, которые вместе идут к своей мечте, чтобы этот фильм стал небольшим утешением тем, кому в одиночку с трудом удаётся выжить в этом непростом мире».

Это был прекрасный воскресный вечер. Аншлаг в кинозале, тысячная аудитория, которая прочувствовала

сердцем эту историю созд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я.

Фильм захватывает с первых минут, его обязательно стоит посмотреть, и не один раз.

Нелли Цой
Фото автора
(ИА РУСКОР)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два месяца 460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улучшил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с помощью выплат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2019 году усилена поддержка сахалинских семей. Среди принятых мер – единовременные и ежемесячные выплаты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улучшение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С начала этого года реализуе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семей при рождении детей», разработанный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 «Демография».

– В 2019 году е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составит 2,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 рас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атер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прежде всего, призвана помоч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решить жилищный вопрос.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широкий спектр мер соцподдержки, важно довести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мощь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до все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м он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 поддержке семей.

На решение квартирного вопроса можно направить региональный материнский капитал – более 204 тысяч рублей. Также при появлении на свет второго ребенка семья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компенсацию расходов, связанных с погашением ипотечного займа, – около 250 тысяч рублей. Получателями этой выплаты с начала года стали более 150 человек.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семейной политик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Галина Щекотова,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оказывается еще более весомая помощь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Семьи, имеющие четверых и более детей,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единовременную выплату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жилья – в среднем 7,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Также при рождении третьего или последующих детей семья може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выплатой в размере половины стоимости приобретаемого или строящегося жилья, но не более 2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действуют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для родителей первенцев. Семьям, в которых родился первый ребенок,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единовременная выплата – около 55 тысяч рублей. В этом году ее уже получили более 220 семей.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им семьям с деть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более 50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действующих региональных льготах, размерах социальных выплат можно узнать с помощью мобильного приложения «Соцподдерж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пятерку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доступности услуг в сфере содействия занятости

Высокую оценку регион получил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мониторинга, который Министерство труда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вело в 86 субъектах страны.

По итогам 2018 год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рейтинга, далеко обогнав друг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В мониторинге учитывались общая ситуация на рынке труда, качество и доступнос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в сфере содействия занятости, а также имиджев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служб.

– Такие успехи стали возможны благодаря тесн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работодателей, – отмет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атьяна Бабич. –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в регион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ставляет 0,5 процента от экономически активного населения. Это один из лучших показателей в Росси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Минтруд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обращает на реализацию мероприятий активной политики занят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спешно занимаются организацией временного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а несовершеннолетних в свободное от учебы время, а также безработных, испытывающих трудности в поиске работы, и молодых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20 лет, кто имеет средне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ищет первое место работы. Кроме того, безработным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ю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услуги по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е.

Специалисты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сахалинцам и курильчанам в организации собственного дела, что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действенных механизмов снижения уровня безработицы и сохранения дохода населения. В 2018 году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остигнут один из лучших показателей в Росси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доле открывших свое дело в общей численности безработных. Такж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топ регионов, где наибольший процент работодателей обратился в органы службы занятости за содействием в подборе необходимых работников.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на протяжении ряда лет стабильно занимает место в пятерке лиде-

ров рейтинга по уровню качества и доступнос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слуг в сфере содействия занятост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отова к переходу на цифровое вещание

С 15 апрел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удет отключено аналоговое телевидение.

– Реализац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по развертыванию цифрового эфирн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у нас была начата с 2015 года и уже с 24 декабря 2018 года для жителей обеспеч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смотра 20 цифровых эфирных каналов. Не нужно ждать 15 числа, смотре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телевидение можно уже сейчас. Для этого надо удостовериться, что ваши телевизоры способны принимать сигнал нового формата. Обладателям старых моделей необходимо обзавестись современными или подключить специальную приставку, – сообщила сегодня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и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сана Маравховская.

По ее словам,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егодня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бота специальных телефонных линий.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могут задать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переходом на цифровое телевидение,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по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одключение и настрой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 телефонам: 8-800-220-20-02 и 8-800-100-00-57.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мощь в установке и настройке оборудования оказывают 520 добровольцев, которые прошли специальное обучение.

В у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в которых невозможно получить качественный сигнал, для просмотра 20 каналов необходимо установить специаль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в народе «тарелки». В области оказывают услуги по спутниковому вещанию телевидения 3 компании – это НТВ+, Орион Экспресс, и МТС. Примерная стоимость оборудования составляет 6-10 тысяч рубле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борудование уже установили 2128 семей.

С 25 марта купить оборудование, необходимое для передачи цифрового сигнала, можно будет на почте.

– Заявки на недорогие ТВ-приста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уже сейчас в отделениях почтовой связи, по телефонам горячей линии (8-800-220-20-02 и 8-800-100-00-57) и отделений связи (они есть на сайте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Почты России»). Маломобильные и престарелые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передать свое обращение через почтальонов, – рассказал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ФГУП «Почта России» Елена Демина.

25 марта в отделения «Почты России» поступят также три вида антенн, которые будут стоить от 160 до 790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сахалинские почтовики принимают заявки на телевизоры не дорогого диапазона.

Напомним, аналоговое вещание федеральных телеканал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рекратится 15 апреля. С этого момента прием телевизионного эфира станет возможен только при подключении цифровой пристав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твердило единые тарифы авиаперевозок пассажиров на внутриобластных маршрутах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119 от 18 марта 2019 года утверждены «единые» тарифы для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и граждан, не имеющих мест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Южно-Курильск – 5 950 руб.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Курильск – 5 950 руб.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Шахтерск – 2 000 руб.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Оха – 6 950 руб.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Ноглики – 4 950 руб.

Продажа билетов по маршрут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Ох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Курильск и Южно-Курильск-Южно-Курильск по «единым» тарифам будет открыта с 19 марта 2019 года. Полеты АО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по «единым тарифам» начнутся с 01 апреля 2019 года, после перехода на летнее расписание.

Пассажиры, которые ранее приобрели билеты на вышеуказанные рейсы по «старым» тарифам,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в места продажи билетов на рейсы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для возвращения разницы стоимости авиабилетов.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Южно-Сахалинск-Шахтерск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Ноглики АО «Авиакомпания «Аврора» завершает работу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расписания и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будет объявлена продажа авиабилетов по дан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Адресная помощь тяжелобольным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увеличена до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в год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января 2019 года до 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увеличен максимальный размер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выплаты островитянам,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дорогостоящем лечении. С начала года за этой мерой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уже обратились 15 человек.

Чтобы увеличить размер выплаты, в бюджет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едусмотрели 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забота о здоровье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дно из важнейших направлений рабо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 Наша задача – не только усиливать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ие меры, но и оказывать адресную помощь тем, кто нуждается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м лечении, но не имеет

возможности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оплатить его, – сказа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Житель Корсакова Павел Червяков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в новогоднюю ночь получил травму нижней части лица от взрыва фейерверка. На беду сахалинца откликнулись многие земляки, что позволило провести сложнейшую операцию в Германии, но требовалось еще длительное и не менее дорогостоящее лечение. За помощью семья Червяковых обратилась в региональ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 Мы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ы сахалинским властям за неординарную денежную помощь на лечение и реабилитацию Павла.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жидаем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ыплаты, без этого не справились бы. Мы с мужем пенсионеры, у нашей семьи доходы скромные, – рассказала мать пострадавшего Наталья Червякова.

По поручению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областной социальный пакет в этом году добавлены и другие новы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В частности, расширен перечень категорий на обеспечение бесплатными санаторно-курортными путевками, что позволи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ойти лечение 1200 сахалинцам.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на эти цели запланировано 15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Кроме того, увеличен размер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денежной выплаты с 30 до 50 тысяч рублей малоимущим гражданам в случае экстремальных ситуаций.

Ознакомиться с полным перечнем мер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могут на сайт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 <https://msz.admsakhalin.ru/>, а также через мобильное приложение «Соцподдержк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alpro.mszApp&hl=ru>.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ширяют сеть газовых заправок и компенсируют затраты на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машин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д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торой газозаправочной станции для автомобилей – на перекрестке улиц Пуркаева 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Ежегодно она будет выпускать до 6 миллионов кубометров газа, что на треть больше, чем производит первая станция. Возводит объект компания «Газпром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Поручение ускорить газификац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перевод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е топливо ранее дал ври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начало 2019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518 автомобилей, использующих «голубое» топливо.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уже к концу этого года удвоить на Сахалине количество машин,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уют газ.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автотранспорт – один из основных источников загрязнения воздуха. Для улучше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 регионе важно решить задачу по переводу машин на «голубое» топливо. Для этого в регионе строятся новые газозаправочные станции. В 4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будет введен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уже вторая газовая заправк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до 2025 на острове планируют открыть 9 таких объектов.

Три из них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по одной – в Тымовском, Макарове, Поронайске, Корсакове, Долинске и Ногликах.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ширить и практику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ередвижных заправок. Пока одна такая машина доставляет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в Корсаков, где его использует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и техника местного совхоза. В 2019 году в регионе начну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торой передвижной газовой заправщик –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топливом Невельска и Холмска. Позднее такая техника появится в Аниве, Смирных, Охе и Ильинском.

Водители отмечают выгоду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аза. Его кубометр эквивалентен литру бензина, при этом стоимость примерно втрое меньше.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возмещается 7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затрат на переоборудование автомобилей на газ, а льготным категориям – 100 процентов. Также для автолюбителей, использующих газомоторное топливо, наполовину снижен транспортный налог.

По словам Сергея Муценко, заправщика газозаправочной станции на проспекте Мира, в этом году регистрируется резкий приток посетителей.

– Наша станция рассчитана на 150 заправок в день. Конечно, пока очереди нет, но количество машин, работающих на газе, растет. Помимо муниципальной техники к нам все чаще приезжают простые сахалинцы, которые переоборудовали свои автомобили, – рассказал Сергей Муценко.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в регио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закупка газобаллонной автобусной и коммунальной техники. В этом году машины, работающие на газе, приобретут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Невельска и Холмска.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закупить 32 автомобиля для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и 7 автобус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모스크바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진전과 학술회의' 열려 러시아독립유공자후손협회 주최로 선조들의 업적 기리는 시간 가져



▲ 러시아독립유공자후손협회는 3월 17일 모스크바 소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 회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과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단체사진 (사진 모스크바프레스)

러시아독립유공자후손협회(회장 최 발렌틴)는 3월 17일 모스크바 소재 전(全)러시아고려인연합회 회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 사진전과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형, 김경천, 조명희, 이범진 공사 등 항일독립운동가들의 후손과 이진형 정무공사와 김원일 전 모스크바한인회장 등 50여 명이 함께 자리해 100년 전 선조들의 업적을 기렸다.

1부에서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소속 전임연구원인 박 벨라,

박 알렉산드로 박사가 러시아 지역에서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 10여 명이 조상들의 독립운동 활약상과 그로 인해 받은 고난을 담은 자료 발표가 진행됐다.

독립유공자 최재형 선생의 손자인 최 발렌틴 러시아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대사관과 동방학연구소의 협조로 행사가 잘 준비됐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독립운동을 기리는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안과 밖에서 꾸준

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러시아 독립유공자협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사진으로 본 러시아 한인의 항일독립운동' 제3권이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대연구단의 협조로 발간됐다는 소식을 전해 행사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전설적인 항일영웅 김경천 장군의 손녀인 갈리나 필란스카야 씨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러시아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조명하는 학술대회와



▲ 사진으로 본 러시아 한인의 항일독립운동' 제3권 발간 소식을 전하는 최 발렌틴 러시아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 (사진: 모스크바프레스)

사진전이 개최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하루 빨리 남북통일이 이루어져 조상들이 바랐던 진정한 독립이 달성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행사 후 이날 함께 자리한 김원일 전 모스크바한인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해외 독립운동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하고 의미를 되살리는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재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신문)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 133 тел.: 49-84-02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72-94.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ого журналис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нт. телефон: 43-67-85, 43-72-94.

한식은 문화다! 한식은 건강과 웰빙을 지향하는 음식으로 세계 식품소비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세계적인 음식입니다. 다양한 한식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한국요리

감자탕

감자탕은 저렴한 돼지 등뼈와 감자, 우거지, 같은 들깨, 깻잎, 파, 마늘 따위의 양념을 넣어 진하고 맵게 끓인 탕으로 감자 속속들이 등뼈 맛이 흠뻑 배어들어 깊고 구수한 맛을 낸다. 아침에 해장국으로 또는 더운 여름과 날씨가 쌀쌀해질 때 식사메뉴, 늦은 밤 야식, 술안주 등으로 이용한다. '감자탕'이란 이름은 돼지 등뼈에 든 척수를 '감자'라 한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설과 돼지 등뼈를 부위별로 나눌 때 감자뼈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넣어 끓였다고 해서 '감자탕'이라 했다는 설이 있다.



그런데 흔히 해장국 대신 먹는 감자 뼈다귀탕은 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기름기를 제거한 돼지등뼈를 넣고 끓여서 국물이 뽀얗게 되면 감자를 통째로 넣고 푹 끓인 형태이다. 감자는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음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역사가 짧은 식품이나 지금은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감자국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감자탕의 유래에 대한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 설은 1899년 경인선 철도공사 때 많은 인부들이 철도공사에 동원되어 인천으로 몰리면서 이때 고안된 음식이라는 이야기이다. 실제 '한동길 감자탕 집'을 3대째 운영하는 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한동길은 전라도

에서 태어났다가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인천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가세가 기울자 생계 때문에 경인철도회사 인부로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인부들을 위해 썩 재료인 시래기, 감자, 돼지 뼈를 이용한 탕국을 만들어 제공한 것이 인기를 얻게 되어 1900년 한강철교 공사 막바지에 이른 노량진 근처에서 함바집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감자탕은 저렴한 돼지 등뼈와 감자, 우거지, 같은 들깨, 깻잎, 파, 마늘 따위의 양념을 넣어 진하고 맵게 끓인 탕으로 감자 속속들이 등뼈 맛이 흠뻑 배어들어 깊고 구수한 맛을 낸다. 아침에 해장국으로 또는 더운 여름과 날씨가 쌀쌀해질 때 식사메뉴, 늦은 밤 야식, 술안주 등으로 이용한다.

감자탕의 유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자웅을 겨루던 삼국시대에 돼지사육으로 명성이 자자했던 현재의 전라도 지역에서 농사에 이용되는 귀한 '소' 대신 '돼지'를 잡아 그 뼈를 우려낸 국물에 각종 채소를 넣어 음식을 만들어 뼈가 약한 노약자나 환자들에게 먹게 한데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전라도 지방에서 유래된 이 감자탕은 전국 각지로 전파된 한국 고유의 전통의 음식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 감자탕은 저렴한 식재료와 충분한 칼로리, 구수한 뼈국물 맛이 우려나 서민들 중에서도 특히 부두 노동자들에게 환영 받던 알짜 영양식이다. 이 감자탕이 대중화된 지역은 인천항이 개항됨과 동시에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와 다양한 음식문화를 갖추게 된 인천이다. 1899년 경인선 개통 공사에 많은 인력이 동원되면서 뼈 해장국과 감자탕이 인천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지금은 250만 인천시민이 모두가 감자탕 매니아라 할 정도로 한 집 건너 감자탕집이 있다.

그러나 이런 감자탕의 유래에 대해서는 말이 많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아무튼 감자탕은 노동자를 위한 음식으로서 전라도의 조리법을 원용하여 인천 지역에서 처음 발생하고 서울에서 발전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감자탕이 서민 음식이었다는 점은 확실하며 이와 관련하여 감자탕이 확실히 자리잡게 된 장소가 인천

이라는 것은 여러가지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소위 물텀벙이라 불리우는 아구찜이 인천에서 기원한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자장면도 1905년 인천 차이나타운의 공화춘이 기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감자탕도 인천에서 성공한 음식이다.

이것을 두고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모여들었던 개항 당시의 인천에서 새로운 음식문화가 생겨났다고 간단히 말해도 되는지는 의문이다. 전국의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에서 모이고 있었다. 외국인에 관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개항을 인천에서 했지만 외국인은 서울에도 많았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음식의 진화가 왜 인천을 기원으로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가난한 남자 독신 노동자의 증가』가 그 이유라고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더, 독신 남자들이 요리를 해먹는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팬찮은 과부하나 후리지 않는 이상은 남이 해주는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네댓 명이라면 하숙집 아줌마 밥을 얻어먹었겠지만, 대규모의 공사장 등이려면 결국 상업적인 외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외식이라는 것에 몇 가지의 전제가 있고 감자탕은 여기에 딱 들어맞는 메뉴가 된다.

1) 남자들이 먹어야 하는 것이니 술안주로 먹을 수 있어야 한다.

2) 노동자들의 음식이므로 열량이 높고 포만감이 들고 재료가 싸면서도 맛이 강해야 한다.

3) 값싼 음식이므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조리할 수 있도록 손이 덜 가는 재료로 마구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어쨌거나 부두노동자들에게 환영받던 감자탕은 돼지등뼈에 단백질, 칼슘, 비타민 B1 등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찾게 되는 인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감자탕은 어린이들의 성장기 발육에 도움을 주고 남성들에게 스테미너 음식이 되며 여성들에게 저칼로리 다이어트 음식, 노인들에게 노화방지 및 골다공증 예방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출처: 한식진흥원)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ахалинцам напоминают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дачи разрешения по месту получения в течение 10 дней с момента добычи охотничьего ресурса или по окончании сроков охоты с обязательным заполнением сведений о добыче медведя, сообщ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러시아는 나의 역사> 박물관 세계 극장의 날을 기념

유즈노사할린스크 <포베다>종합기념관 소속 <러시아는 나의 역사>디지털박물관에서 세계 극장의 날을 기념할 예정이다.

3월 27일 종합기념관 전시관은 아름다움과 교류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한다. 이날 역사공원에는 <투예소크>민속예술단과 <동화의 주인공>어린이극장이 공연을 펼친다.

유·청소년예술회관의 학생들은 러시아의 전래동화 <스네구로즈카(눈의 소녀)>를 민속뮤지컬로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입장은 무료다. 시작은 10시 30분이라고 역사공원 측이 전했다.

문의 전화: 49-57-28.

Всемирный день театра отметят в музе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интерактивном музе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ММК "Победа" отметят Всемирный день театра.

27 марта мультимедийный комплекс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иобщиться к прекрасному. В этот день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выступят народный ансамбль "Туесок" и детский театр "Герои сказок".

Воспитанники дворца детского и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представят вниманию зрителей музыкальный фольклорный спектакль по русской народной сказке "Снегурочка".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Начало в 10:30, сообщает исторический парк.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49-57-28.

Сахалин주 15개 구역을 대표하는 학생 450명 <빅토리아>축제·경연대회에 참가

지난 3월 15일 <빅토리아>애국 노래·문학낭독 경연축제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청소년예술회관에서 대규모 갈라콘서트로 막을 내렸다.

사할린주 15개 구역에서 온 450여 명의 학생들은 국민적, 애국적인 주제로 노래와 시낭독으로 경연을 펼쳤다.

이 행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대 철수 30주년(외국에서 군복무를 한 러시아 국민 추념의 날)과 북 카브카즈 반테러작전 완료 10주년, 다만스키섬 전투 50주년을 기념하여 조성되었다.

시상식은 사할린주 정부, 주 교육부, 주 학교밖 교육활동센터 지도부가 진행했다.

450 школьников из 15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вовали в фестивале-конкурсе "Виктория"

Большим гала-концертом во Дворце детского (юноше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ершился 15 марта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чтения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песни "Виктория".

Около 450 школьников из 15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язались на этом конкурсе в исполнении песен и стихо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и гражданской тематики.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о 30-й годовщине вывода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из Республики Афганистан (День памяти о россиянах, исполнявших служебный долг за пределами Отечества), 10-й годовщине завершения контртеррористической операции на Северном Кавказе, 50-й годовщине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на острове Даманском.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проводило руковод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нешкольной воспитательной работы.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시십시오.

전화: 43-59-80, 43-7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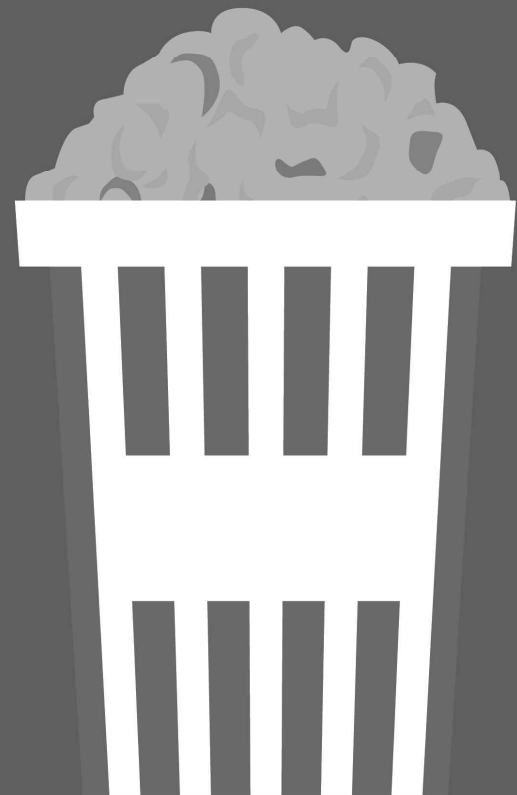
콩쿠르조직위원회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